

‘광주 명장’ 기계·정보처리·미용까지 확대

기존 제도 개편 조례안 예고 37개 분야 대상 하반기 선정 ‘명장 아카데미’ 등도 운영

광주시는 명장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19일 광주시는 “2013년 ‘공예 명장’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까지 11명을 선정해 인증서 등을 지원해왔지만, 분야가 한정돼 있고 인지도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제도를 개편해 ‘광주 명장’ 제도를 운영하

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 광주시 홈페이지에 ‘광주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광주 명장’ 대상은 특정분야·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했으며, 광주에 주민등록과 관내 기업체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가능 직종은 ‘대한민국 명장’과 동일한 기계, 정보처리, 건축, 디자인, 미용, 제빵·제과, 공예, 전통음식 등 37개 분야 97개 직종이다. 선정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전문가

현장심사, 명장심의위원회 최종심사 등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명장증서, 인증패, 기술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광주시는 3월13일까지 조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듣고, 4월 조례 제정, 기술장려금 등 추경예산에 대한 시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 하반기에는 ‘광주 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청소년을 대상으로 명장과 함께 숙련기술을 체험하는 ‘찾아가는 명장 아카데미’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명장들의 숨결과 혼이 깃든 제품을 관광상품화해 문화·기술적 가치를 지역유산으로 물려주는 토대를 마련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명장 제도 운영을 계기로 스펙과 학벌에 얽매지 않고, 기술에 대한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승부하는 능력중심사회 모델을 만들겠다”며 “특정분야에서 평생 한 우물을 파온 사람, 한 길을 걸어온 명장의 삶이 지역 문화가 되고 자산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직장맘지원센터, 상담 프로그램 운영

아빠·가족까지 대상 확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직장대디의 스트레스 완화와 일·생활균형 노무상담을 위한 무료 심리·노무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엄마들과 아빠들의 육아·돌봄·직장갈등 등 다양한 심리적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의 경우 직장맘을 대상으로 운영됐지만, 올해는 아빠 및 가족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가족친화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상담전문가(심리상담가,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찾아가는 고충해결단’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상담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고충해결단은 지역박람회, 교육·행사장 등에 종합 상담부스를 운영하는 현장 상담(30회)과 기업·기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기업·기관으로 전문가를 파견해 개별·그룹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전문가파견(25회) 등으로 나눠 운영된다. 또 추가 상담이 필요한 직장맘·직장대디에 대해서는 심층심리상담(20회)을 실시한다. 전문가 파견을 희망하는 기업·기관 등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woman.gwangju.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chosyng89@korea.kr) 또는 팩스(613-7969)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613-7982)로 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기센터 유치원·어린이집 새싹 농부 체험교실 운영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광주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넷째 주 목요일에 ‘자라나는 새싹 농부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자라나는 새싹 농부 체험교실’은 도심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원예 체험 기회를 제공해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체험교실은 화분에 허브·초화류·다육식물을 심고 기르는 것부터 유리온실 내 아열대 식물원 견학 등 원예체험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 신청은 1차 2월, 2차 5월, 3차 8월 등 분기별로 진행된다. 1차는 27일까지 광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fndnfndn32@korea.kr) 또는 농업기술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평모들 무등산 평촌마을에

도시가족 농부체험장 개장

광주시는 지난 18일 북구 평모들 내 무등산 평촌마을에서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도시가족 주말농부 농촌체험 행사’를 개장했다. 광주시와 농협광주본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도시가족 주말농부 농촌체험 행사’는 도시민이 농촌마을을 방문하고 계절마다 영농과 수확 체험, 농산물로 음식 만들기 등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11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실시하며, 참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은 누구나 가능하다. 이날 첫 개장 행사에는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월 대보름 특별 농촌행사도 위불놀이, 오곡밥, 나물반찬 나눔 등 민속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문가들이 창업 도와 드립니다...광주시 창업지원드림팀 출범

광주시는 창업 초기에 겪는 시행 착오와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18일 오후 광주 I-PLEX에서 ‘창업지원드림팀’ 출범식을 가졌다. ‘창업지원드림팀’은 기술 2명, 경영 3명, 마케팅 3명, 투자분야 2명 등 창업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창업지원 전문가 컨설팅단이다. 앞으로 광주시 창업지원 사업인 ‘청년 예비창업자, 세대융합창업자, 재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

한다. 특히 광주 I-PLEX에 상주 또는 기업방문 등의 방식으로 예비창업회망자에게 창업 아이템 진단, 경영·마케팅 등을 준비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컨설팅 임무를 수행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올 개청 이후 최대 규모 847명 채용

지난해보다 383명 증원

광주시는 20일 올해 신규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선발인원을 847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는 광주시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이며, 지난해보다는 383명 증원된 수치다. 이번 채용에는 광주형 일자리 지원 및 도시철도 2호선 공사착공에 따른 증원인력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일자리 확대정책과 연계된 신규 행정수요가 대폭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행정직 518명 ▲기술직 329명이다. 직급별로는 ▲7급 25명 ▲연구사 17명 ▲8급 50명 ▲9급 755명 등이다.

직렬·직급별 채용인원은 ▲행정 327명(일반 291, 장애인 20, 저소득층 15, 북한 이탈주민 1) ▲사회복지 136명(일반 118명, 장애인 10명, 저소득층 8명) ▲세무 33명 ▲전산 11명 ▲사서 9명 ▲방호 1명 ▲공급 51명 ▲농업 9명 ▲복지 9명 ▲보건 8명 ▲식품위생 1명 ▲간호 49명 ▲보건진료 1명 ▲환경 10명 ▲시설 132명 ▲방재안전 2명 ▲방송통신 7명 ▲속기 1명 ▲의료기술 11명 ▲수의 3명 ▲약무 2명 ▲위생 1명 ▲운전 6명 ▲연구직 17명 ▲고종구분 10명 등이다. 시는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진출 기

회를 넓히기 위해 일반 응시생과 별도로 장애인 30명, 저소득층 34명을 구분 선발한다. 또 공업9급 4명(기계 2, 전기 2), 시설9급 6명(토목3,건축3) 등 2개 직렬 10명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 구분 선발한다. 시험 일정은 8·9급 795명을 선발하는 제임용시험은 4월8일부터 12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6월15일 필기시험, 8월 중 면접시험 순이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9월6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13-6281-4.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동구, 내달 시작 인문대학 수강생 모집

광주시 동구는 “인문도시 조성을 위해 3월부터 시작하는 ‘동구 인문대학’ 수강생을 20일부터 3월말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동구는 역사·철학·문학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했던 ‘인문학교실’을 올해부터 ‘인문대학’으로 통합해 ▲인문학 강좌 ▲인문자산 프로그램 ▲리빙 랩 프로젝트 등으로 확대 운영한다. 인문학 강좌는 주제를 확대해 동·서양 철학·역사뿐만 아니라 음식문화, 육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인문학 강좌를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소통과 배려가 있는 이웃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용과 포용을 주제로 한 상생인문학 강좌도 마련된다. 인문자산 프로그램은 동구지역 인문자산을 활용한 강좌와 창작워크숍으로 구성된다. 오지호·문병란 등 지역 대표인물과 그 유산들을 돌아보고 증장모상인, 정

년작가와 협업해 창작체험을 진행한다. 협력하는 주민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리빙 랩’ 방식의 프로그램도 다룬다. 리빙 랩(Living Lab)이란 일상생활 실험실이란 의미로, 일상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 전문가, 행정이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시도다. 동구는 동명동 쓰레기문제, 계림동 현책방 활성화 등 지역현안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동구는 상반기에 동양철학, 역사, 생활주제를 다루는 인문학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반기에 인문학강좌를 비롯해 인문자산, 리빙 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3월말까지 동구 홈페이지(www.dongu.kr)와 구정홍보 앱 ‘두드림’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인내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북구, 구청사 회의실서 교복 나눔 장터

2000~5000원 교복 등 판매
광주시 북구가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2019 교복 나눔 장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년부터 최근까지 지역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 지역 업체들이 기증한 교복·체육복·책가방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셔츠·블라우스·바지·치마·조끼는 2000원, 책가방·실내화는 3000원, 재킷은 5000원에 판매한다. 수익금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

한 장학금으로 전액 기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주민자치과(062-410-6174)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나눔과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5년부터 북구새마을부녀회와 함께 5년째 교복 나눔 장터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판매로 얻어진 수익금 전액을 (재)광주북구장학회에 기탁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좋음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음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급매8억(대출3억5천만원 포함)
- 2019년 2월 28일까지

문의. 010-6834-7400